

<어머니의 작은 골목>

우리 집은 도로가에 위치한 상가형 5층 주택입니다. 이곳은 많은 서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곳인지라, 이웃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다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세상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 어울려 살아가는 평범한 동네입니다.

특히 우리 집 바로 뒷골목은 언제나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시시콜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꽃피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먹거리 풍성한 잔치 집 풍경으로 변하기도 하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골목의 대장이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슬픈 일,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며 그들과 늘 함께 해주 시기에 우리 동네에서 인기가 참 많으십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각에 일어나셔서 요구르트 한 병을 꺼내어 들고 골목 초입에서 꼬트머리 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질을 하셨습니다. 함께 아침을 여는, 친구 같은 청소부 아저씨를 만나서 손에 꼭 쥐고 있던 요구르트를 건네주시고는 사이좋게 부지런히 길바닥을 쓸어내면 우리 집 뒷골목은 마치 고운 비단을 깔아 놓은 듯 모두를 기분 좋게 해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즐겁고 깨끗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주셨기에 어머니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 길 건너에는 전봇대 하나가 서 있습니다. 동네가 생길 때부터 있었으니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환갑도 넘었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전봇대 주변은 누군가가 몰래 가져다 버린 쓰레기들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들과 심지어 음식물이 담긴 봉투까지 내팽겨 쳐져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 없는 전봇대를 피해 멀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말 비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골목에 모여든 사람들도 건너편에 쌓인 쓰레기 뭉치들을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도대체 누가 저런 몰지각한 짓을 하노?”

“쓰레기봉투 값 아낀다고 저렇게 양심을 판다 아이가!” 라며 흥분하여 성토를 하고 있었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골목을 청소하고 나서 비뚤어진 양심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들로 가득한 전봇대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류, 종이박스류, 병류, 일반쓰레기, 음식물을 일일이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청소부 아저씨가 “아이고 할매요, 뭐 한다고 그라십니까? 할매가 버린 것도 아닌데…….” 하며 어머니를 말리셨지만, 청소부 아저씨를 도와 쓰레기 정리를 마무리하신 그 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버려진 양심을 정리하셔야 하는 한 가지 일이 더 생기신 겁니다.

“아들~ 오늘 저녁에 일찍 오나?”

“뭘 일 있습니까?”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꼭 얼굴을 보며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는 마치 큰 비밀을 가진 사람의 표정을 하시고는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전봇대 옆 쓰레기 정리를 하다가 돈을 봤다 아이가”

“무슨 돈어요? 얼마요?”

어머니는 때 묻은 편지봉투에서 5만 원권 지폐 10장을 꺼내셨습니다. 누군가 쓰레기가 버려진 전봇대 옆을 지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이거 우짜노?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도 누가 흘리고 간 건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타겠노.”

마치 당신이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안절부절 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어무이, 어무이가 평소 남들이 하지 않는 굶은일을 도맡아서 하시니까 이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어무이 쓰이소. 누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허허.”

순간 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자리를 바로 하시고는,

“내가 이런 것을 바라고 그동안 그 일을 했던 말이가? 그리고 너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노? 공직자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쉽게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떨겠노? 그리고 그 돈이 내한테 좋은 것이면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피같이 소중한 것인데, 모른 척하고 가지라고 한다면 말이 되느냐?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마라!” 하셨습니다.

매섭게 질책하시는 모습에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무이, 제가 잘못 했습니다, 지구대에 가서 신고 하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전봇대에서 습득한 50만원을 들고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그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한순간 잘못 생각한 것이 죄송스러워 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사드리겠다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나는 우리 아들하고 먹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최고로 맛있다.” 라 하시며 저를 동네 맛집으로 소문난 3천 5백 원짜리 칼국수 집으로 이끄셨습니다.

칼국수를 드시는 동안에도 돈을 잃어버린 사람 걱정에 여념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읽지 못한 죄송스러움과 남의 소중한 것을 가볍게 생각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늦은 밤 부모님이 계시는 위층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기 천사처럼 곤히 잠드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깨끗한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못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자책하면서 정직함을 몸소 실천하신 어머니의 고운 두 손을 살포시 잡아보았습니다.

며칠 후 지구대에서 돈 주인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은 돈 주인은, 정말 감사하다며 잃어버렸던 돈 5만 원권 10장 중 한 장을 사례금으로 건넸지만 어머니께서는 완강히 거절하며,

“젊은 아줌마, 돈을 찾아서 참 잘됐다. 마음고생 많이 했제. 아줌마가 좋아하는 걸 보니 내가 더 기분이 좋다.” 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젊은 여자 분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소중한 쓰일 돈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동네에 소문이 났고, 골목에 모여든 사람들은 너도나도 어머니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웃으시며,

“내 것이 소중하면 남 것은 더 소중한 법이야.” 라며 당신의 뺨짓돈을 털어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개씩을 돌리셨답니다.

우리의 골목을 지켜주신 골목대장님은 이제 더 만나 볼 수 없습니다. 올해 2월 말경 어머니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 골목에서 예전의 생기를 찾아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목 입구 끝자락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골목길은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 의해 깔끔히 치워져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나는 너네들이 기분 좋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아서 골목청소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웃는 것이 더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나한테 고마워 할 필요 없다.” 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작은 선행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실천을 보아 온 동네 사람들은 비록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그 작고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돌아가며 골목을 청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어머니의 정성과 마음이 그대로 잘 전해져 어머니의 골목은 언제나 변함없이 깨끗한 골목으로 남아 있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전봇대도 묵은 때를 벗은 듯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평소 청렴이란 참으로 거창하고 고귀하여 쉬이 접근하기 힘든 실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전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 청렴이란 작은 골목에서도, 쓰레기더미에서도 피어나는, 누구에게나 작은 감동으로 다가와 일상의 향기를 보태어 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의 작은 골목에 서서 어머니의 청렴한 향기를 맡으며 청렴의 실천을 다짐해봅니다.